

삼성, 줄기세포 연구 “본격화”

삼성그룹이 줄기세포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해 주목된다.

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 줄기세포는 물론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.

삼성그룹은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학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삼성 래미안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사 인근 1만1169㎡ 부지에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를 전담할 삼성융합의과학연구원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식약청도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1/02/17>